

특정 정당·지역색 보단 공약... '젊은 동탄' 표심은 어디로

충선 유세현장 가보니

경기 화성을

1강 공영운 맞서는 한정민·이준석 유권자 '교통문제 해결' 가장 원해 세 후보, 버스증차·트램 등 내세워

경기 화성읍은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역구 평균연령이 34.5세로 254개 지역구 중 가장 젊은 도시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이나 지역색, 색깔론 등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현안에 따라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를 찾았다.

화성읍은 동탄 지역으로,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후보를 영입했고, 민주당은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를 영입했다. 여기에 '젊은 표심'을 노리고 이준석 후보가 참전했다. 이같은 치열한 공방에 화성읍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구로 부상했다.

경기 화성읍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민주당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공영운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1강' 공 후보를 한정민·이준석 후보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뒤쫓는 양상인 셈이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뉴스시스

실제로 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무선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 후보는 44.5%, 한 후보는 20.7%, 이 후보는 28%를 얻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일 무선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공 후보 43%, 한 후보 18%, 이 후보 28%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다. 동탄호수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서울 가는 버스가 모자란다" "GTX가

개통됐지만 버스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 후보 모두 버스증차·트램 개통·남사터널 추진 등을 입모아 약속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아이와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30대 여성은 "원래 민주당만 찍는다. 그런데 이번 후보는 현대차 사장 출신이라 더 마음이 간다"고 했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후보들 공약은 비슷한 면이 많던데, 정권심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80대 남성은 "나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이 지

역 보수표가 분열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인지도가 높은 이준석 후보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몇몇 시민들은 호수공원 인근 상가 앞에서 유세를 하던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파이팅'을 외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호수공원을 지나던 한 40대 여성은 "이준석 후보 공약이 세세해서 마음에 들지만, 당선 가능성이 잘 모르겠어서 고민 중"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공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말보다 실력으로 해내겠다"면서 "검증

된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 신상품인 제가 '정권 심판'과 '동탄프리미엄'을 완성할 수도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정민 후보는 "저에게는 30억짜리 집도, 전국적인 인지도도 없지만, 동탄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탄 발전의 청사진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동탄이 베드타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경기 남부의 중심에서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것인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송도, 교육·교통문제 해결해 정주여건 강화”

충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김기흥 인천 연수를

“유권자, 젊고 힘 있는 정치인 원해” 외국인·국내 투자로 일자리 마련 도시 빈 공간에 복합상업시설 유치

“송도 유권자들은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를 후보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의 표심이 결집하고 있고, 선택을 유보해온 중도층이 결국 김기흥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흥 후보는 10년 이상 송도에 거주하며 직장까지 통근한 '송도 아빠'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함께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친 뒤, 본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통합과 헌신, 희생을 통한 쇄신을 누가 폭넓고 깊이 있게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며 “오만하면 절실하지 못하며, 절실하지 못하면 통합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를 후보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도 유권자들이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제공

그는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노조장 정치와 무책임한 정치에 실망도 깊다”며 “결국 김기흥이라는 사람이 호응을 얻은 것은 책임정치와 송도의 발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초심, 진심, 뚝심으로 간직하며 더 많은 유권자를 찾아 가는 것이 승리를 위한 남은 과제”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 후보는 송도의 정주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 자

족 기능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이 중요한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송도 내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송도를 국제도시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다.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꾸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송도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상업적 수요를 채워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도시의 빈 공간에) 주민들의 염원

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상업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 ‘총선 위기론’ 등이 언급되는데 대한 김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송도는 젊고 역동적인 곳이자, 변화에 대한 바람이 큰 곳”이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관점보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결코 오만한 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민주당의 오만한고 위선적인 공천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물경쟁력에 대해 우위를 점한 만큼 각 후보들이 ‘선민후사’라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연수를 유권자들을 향해 “초심, 진심, 뚝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송도 주민을 섬기고 싶다”며 “정부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보탬이 되고, 송도와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쏟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

유권자 79% “반드시 투표” 22% “후보·정당 미결정”

4·10 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유권자 10명 중 8명가량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78.9%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18~19일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였다.

투표할 후보·정당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67%,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2%로 조사됐다. ‘후보자만 결정했다’는 응답은 1.8%, ‘정당만 결정했다’는 응답은 8.6%다.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은 ‘소속 정당’이 27.6%, ‘정책·공약’ 27.4%, ‘능력·경력’ 19.7%, ‘도덕성’ 18.2%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정당 선택 시 고려한 사항은 ‘정당의 정책·공약’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20.3%), ‘지지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4%), ‘지지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1.7%) 순이었다.

/서예진 기자